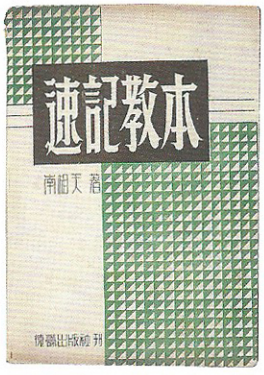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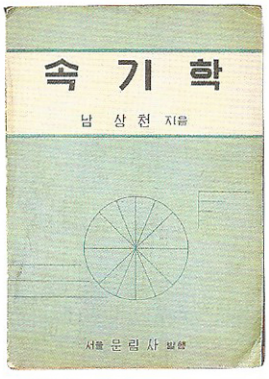
# 남상천

2011년
—
8건 16점
기증




▲ 한기2 속기교본




▲ 한기3 속기학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두 기록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속기'라는 방법이 필요해졌고, 점과 선·원·위치·방향·길이 등의 부호를 사용하여 손으로 적는 속기문자가 개발되었다. 기증자 남상천은 1956년 자신의 이름을 딴 '남천식(南天式)속기'를 개발한 창시자이다. 그는 직접 개발한 속기문자를 상용화하기 위해 속기교본을 발간하여 오랜 시간 교육을 해 왔고, 1957년 '남천속기연구소'를 설립하여 최근까지도 일반용 속기학 교재를 발간하며 속기의 연구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1955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속기를 교육하였고, 1956년 『속기교본』을 발간하였다. 1957년 집필한 실업고등학교 학생용 교재 『속기학』은 1964년 문교부검정(제3344호)교과서로 채택되어 이때부터 전국 실업고등학교에서는 속기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 후 문교부 주최로 속기능력검정고시와 속기실기종합경진대회를 시행함에 따라 그가 직접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가 속기를 교육하는 목적은 속기사 양성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빠르게 혹은 비밀스럽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속기를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찰 교관, 법원 서기 등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대상이 일반 대중으로 확장되었고, 지속적으로 일평생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기를 가르쳤다. 손으로 쓰는 속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속기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수필속기문자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속기교육은 속기문자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책임감이자 보람이었다.

남상천 나는 속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속기사는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속기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결국 공무원인 속기사가 사망하거나 퇴직하지 않는 이상 자리가 안 나요. 경찰관들도 경찰전문학교에서 교관들 불러다 교육하라고 그래서 교관들을 가르치면 교관들이 각 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서 파급시키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표창장 하나 남은 거밖에 없어요. 금전적인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원서기들이 지금은 속기를 별로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썼어요. (속기가) 왜 필요하냐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하는데, 한글이나 한자를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면 다른 걸로 기록해야 하는데, 그러면 속기문자를 써야 해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지요.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 지금도 내가 만 60년 동안 했어도 후회는 안 해요. 학원 내려면 장사처럼 강의실 사용료 내야죠, 신문광고 해야죠. 신문광고도 한 번 하는 걸로 몇 사람 와 봤자 돈벌이가 안 돼요. 난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것을 돈벌이하고는 관계없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60 평생을 했어요.

처음 속기문자를 만들게 된 것은 군복무 중일 때였다. 1950년 2월에 공개시험을 통해 육군 법무관실 행정군으로 자원입대하였다.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6·25전쟁이 발발하여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후방 부대에서 복무하며 동판으로 만든 속기교본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제대 후 1955년에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첫 배정은 재무부 사세청이었다. 사세청은 지금의 국세청으로, 각 지방의 조세 관련 행정을 담당하던 부서였다. 세무공무원 자리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였지만 속기교육에 몰두하던 그로서는 일이 많아지니 번거로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농림부로 전출 신청을 하였고, 재직 중에도 계속 속기교육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6년 3월에 『속기교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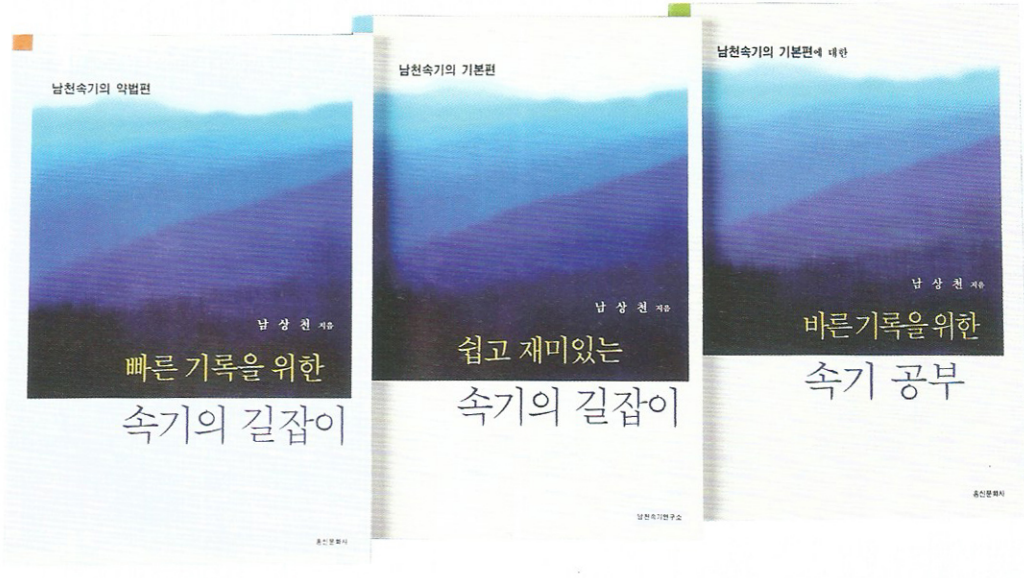
◀ 제17회 전국 속기지도 강습교사 수료 기념식 (1973. 1.) 사진제공 남상천

남상천 1955년에 공무원 공개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재무부에 배치가 됐는데, 재무부 사세청은 공무원들이 제일 동경하는 데예요. 세무공무원이 돼 가지고 일산세무서에서 세무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속기교육을 도저히 발전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로 전출했어요. 농림부는 별볼일 없잖아요.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농림부 같은 데는 수익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과에 있는 친구가 재무부 배치를 못 받으니까 재무부 가고 싶어 해서 내가 교체해 가지고 그 친구 농림부에서 재무부로 보내고 나는 농림부로 갔지요.

그가 속기를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연구한 것은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들의 사용 빈도였다. 기본문자에 대한 빈도수를 통계 내어 많이 쓰이는 문자일수록 단순하게, 그리고 세로보다는 가로로 구상하였다. 속기문자는 원에서 파생된 곧은 줄과 굽은 줄을 기본으로 하였고, 이어 쓰기 편하도록 구상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상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글자가 빈도수가 많은지 과학적으로 통계작업을 거쳐서 다 조사를 해야 해요. 또 가로로 긋는 게 세로로 긋는 거보다 동작이 빠르죠. 동작이 빠른 건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즉 빈도수가 많은 글자를 더 빨리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원에서 뽑되 동작이 어떤 게 빠르냐, 이렇게 세로로 된 거보다는 가로로 된 게 낫고, 글자가 이렇게 내려간 것이 올라가는 거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속기문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에 강의를 무료로 해 주는 데다 공무원 재직 중에 번 봉급은 전부 교육하는 데 쏟아붓고, 그마저도 퇴직하고 나니 곤궁해졌다. 결국 그는 식품사업에 뛰어들었다. 1984년 보리차 티백을 생산·수출하였고, 해태음료 '보리텐'의 가공 원료를 9년간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현미승늉차의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를 획득하여 쌀음료 '아침햇살'의 원료를 공급하는 등 식품업계에서 승승장구하였으나, 2001년에 돌연 사업을 접고 속기교육자로 돌아왔다.




▲남상천이 집필한 속기교본 (2004)

◀◀ 성균관대학교 교양과목 속기학 강의 (2013. 9.) 사진제공 남상천
◀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속기학 강의 (2014. 3.) 사진제공 남상천

2002년 서울양천도서관에서 시작한 6주 24시간 교육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무료특강을 진행하였다. 그 후 천안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에서 속기학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강좌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스스로 장학금까지 출연해 가며 속기지도자를 양성하였다.

**남상천** 농림부에서 있다가 농협 중앙으로 왔는데 농림부 과장 월급이 9만 원, 옛날에 쌀 한 가마 값밖에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농협 중앙에 가서 검사부장을 하면서 있다가 퇴직하고 속기를 하려니까 할 수 없어서 식품사업을 했어요. 그때 대경문화사도, 출판사도 내가 한 거예요. 출판사는 법적으로 허가받는 게 아니라 아무나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아내 이름으로 냈죠.
누가 이걸 만들지도 않아요. 국정교과서는 국가에서 만들지만 검인정교과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죠. 집에서도 불평이 컸고요. 또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돈을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식품사업에 손을 대서 웅진식품의 하늘보리, 아침햇살 이런 거를 개발해서 발명특허를 냈어요. 그걸로 돈벌이를 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딴 사람보다 앞서가야지 뒤에 가면 안 되잖아요.

속기는 한번 법칙을 익혀 두면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 매력을 느껴 오랫동안 남천식 속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남상천속기연구소의 소속 강사로서 일선에 나가 강의를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여태까지의 속기교육 노하우를 집대성한 『남천속기의 기본편』『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남천속기의 약법편』 등 3권의 개념서를 출판하였고, 현재 남천속기연구소 홈페이지에 교재 내용을 모두 게시하여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일생 동안 집필한 속기학 교재와 자료들은 국립한글박물관 외에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지에 고루 기증하였다.

**남상천** 우리 여직원이 속기를 배워서 공개강좌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왜 속기를 시작했냐 하면 일기를 써 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 놨는데, 언니가 청소하다가 툭 떨어져서 봤대요. 당연히 비밀이 폭로됐겠죠. 그래서 속기를 배워서 근무하며 강의도 나가고 그랬어요. 재미있죠?
이게 속기 기본편이에요.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다운도 되고 출력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연습장이고요. 약법을 해야 빠른 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약법 단계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도 배우는 건 간단해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몇 년 동안 엄청 공들여 만든 겁니다.

**한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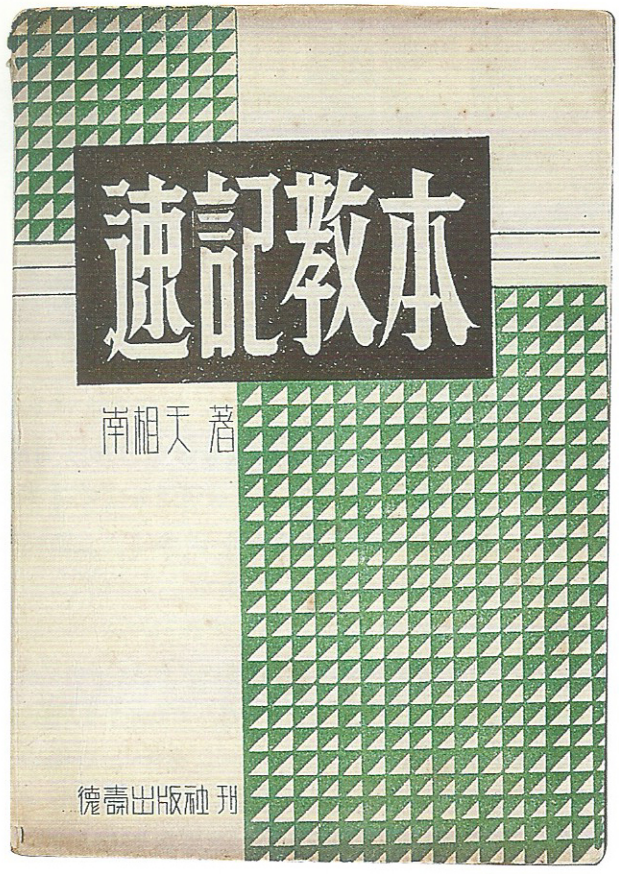
**속기교본**

1956년 1점

12.9 X 18.5

덕수출판사

남상천(南相天)이 '남천식 속기' 방식을 고안하고 속기 방법을 해설한 책




**한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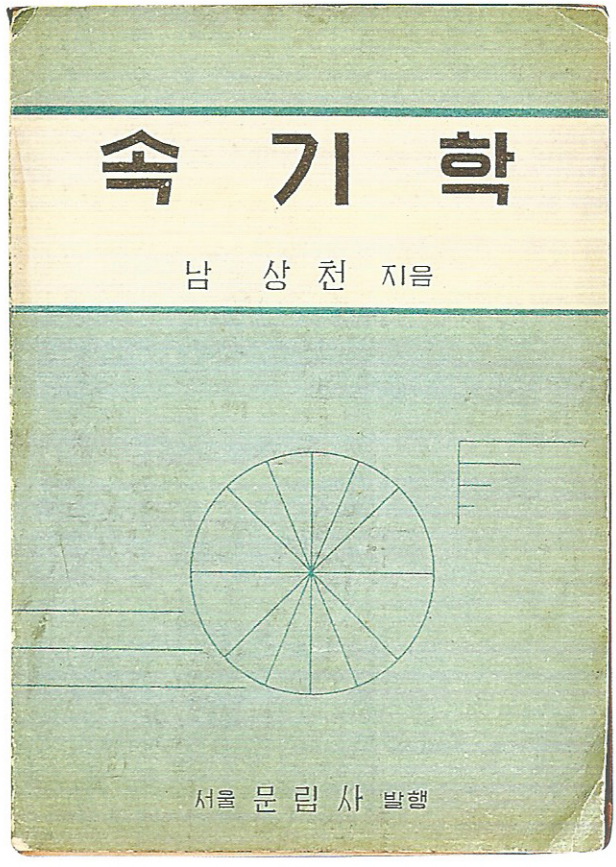
**속기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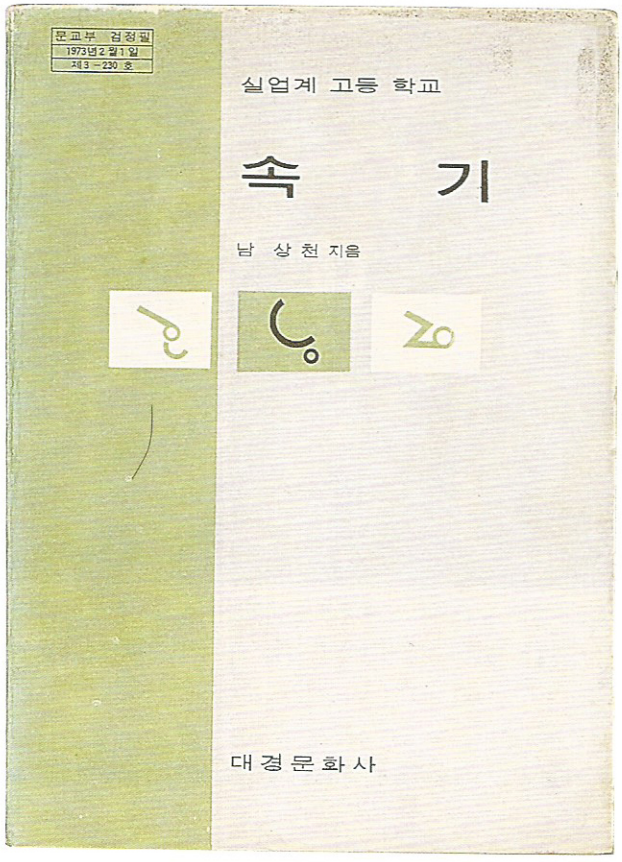
1957년 1점

14.8 X 20.8

문림사

무형의 음성이나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화하는 속기 방법을 해설한 고등학교용 속기학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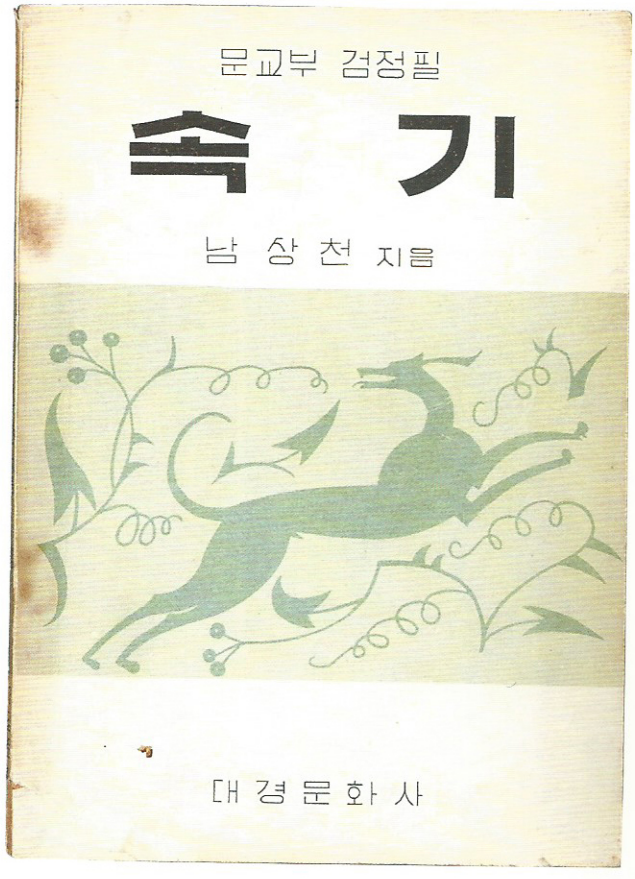



**한기4**

**속기**

| | |
|---|---|
| 1977년 | 1점 |
| 14.9 X 20.7 | |
| 대경문화사 | |

무형의 음성이나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화하는 속기 방법을 해설한 실업계 고등학교용 속기학 교과서




**한기5**

**속기**

| | |
|---|---|
| 1965년 | 1점 |
| 15.0 X 20.9 | |
| 대경문화사 | |

무형의 음성이나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화하는 속기 방법을 해설한 상업고등학교용 속기학 교과서